

지역 소식통

정읍, 평생학습 진흥 박차

정읍시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진흥에 나선다.

시는 전북과학대학교와 함께 2006년 평생학습도시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문해교육협회의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은 문해교육 과정에 대한 이론과 현장 수업시연을 통해 문해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 내 문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양성과정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해교육 전문가로서 교수설계, 운영, 상담, 문해교사의 역할과 자제 등의 교육을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해교육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문해교육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합수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북과학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료·교재비 등은 전액 무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장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1일 부안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영두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된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방·대비 태세,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등 재해위험 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소한 신호도 놓치지 않고 더욱 안전한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황윤석도서관 건립' 순항

유현준 건축가, 현장 찾아 최종 점검 나서

고창군의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고창 황윤석도서관 건립사업이 지난달(5월) 목구조 주요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순항중이다.

고창 황윤석도서관은 큰 나무 숲의

가치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건축공간을 구상하였으며, 국내 도서관 업무이 지난달(5월) 목구조 주요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순항중이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유현준 교수(홍익대 건축학부)



지난 11일 유현준 교수가 고창 황윤석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 설계도 구현을 위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을 진행 하였다.

가 설계를 맡아 화제가 됐다.

지난 11일 유현준 교수가 고창 황윤석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설계도도 구현을 위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을 진행 하였다.

또한, 이날 도서관운영팀, 공사 감리단과 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여건 변화와 자제 선정에 따른 재질·색상등의 선정 등에 관해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유현준 교수는 "고창 도서관은 '종모'를 모티브로 전통을 재해석해서 디자인한 도서관이다"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만큼, 최고의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 황윤석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해 지상 2층, 지하층의 연면적 3,815㎡의 규모로 고창읍 일곡지구 농어촌뉴타운지구 내에 지어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서관 확충은 군민 누구나 비용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심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획기적·창의적·세계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고 건강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해 군민의 품격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12일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정읍시, 청렴 골든벨로 한마음

기관 청렴도 향상 목적 강도 높은 대책 수립

정읍시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12일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골든벨은 신규임용자와 승진자 등 부서를 대표하는 직원 130여 명이 서바이벌 형식으로 문제를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든벨에서는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복패 관련 법령에서 발췌한 문제가 제시됐다. 다소 무겁고 딱딱한 내용이었으나 객관식과 주관식, OX퀴즈 방식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직원들은 골든벨 최종문제에 도전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각 부서별로 소속 직원들

을 응원하기 위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화수 시장은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간부 공무원부터 신규 공무원까지 한마음으로 단합해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청렴프로그램을 진행해 공정하고 청렴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청렴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고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기에 가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 안개분무시설로 쾌적함 UP

안개 분무 속 시원한 정보기

정읍시가 여름을 대비해 이달 중순부터 샘고을시장 내 제1문(천변방문)~제8문(술나무떡방앗간)까지 주요 통로부 약 446m 구간의 안개분무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안개 분무는 온도·습도 조건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안개 형태의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무더위 시 시장 내부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유지해 이용객과 상인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에는 샘고을시장을 시원한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안개분무 가동을



정읍시가 여름을 대비해 이달 중순부터 샘고을시장 내 제1문(천변방문)~제8문(술나무떡방앗간)까지 주요통로부 약 446m 구간의 안개분무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된 안개분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지난 5월부터는

예비 가동에 이용객과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만전을 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축산농가 폭염대응 강화

부안군이 여름철 축산농가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응 상황실 운영 등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폭염대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폭염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과 축사환경 예방요령,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창원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참가

창군이 12~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경상남도과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양한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이 참가하였다.

귀농과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청장년층의 귀농귀촌 상담 방안이 많았으며,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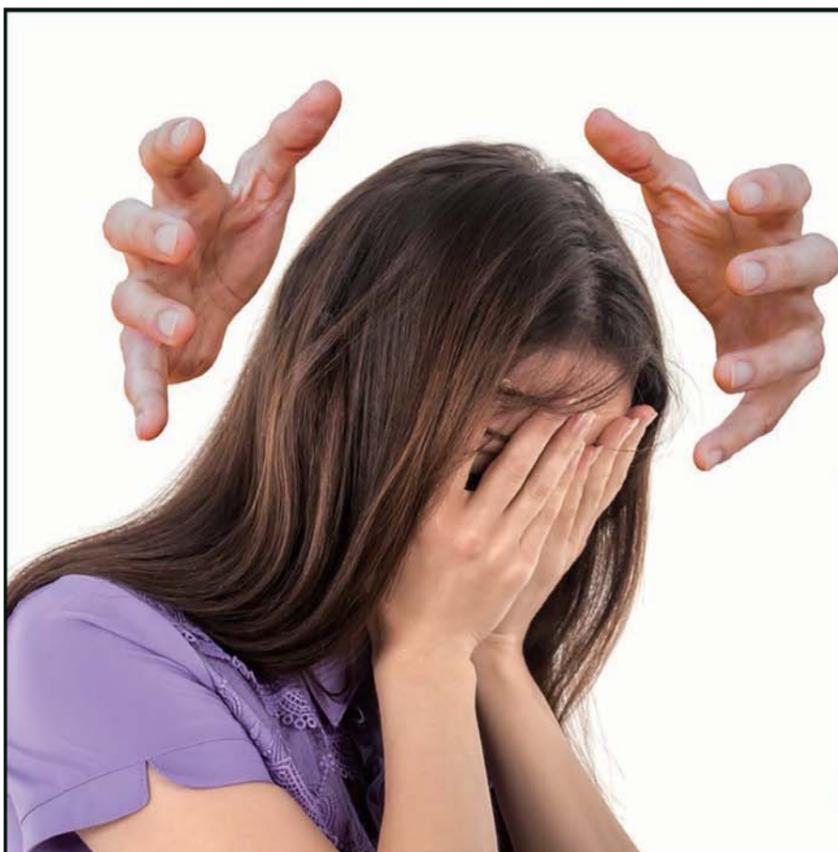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우수 농특산물 전시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적극 홍보했으며 1대1 귀농귀촌 맞춤 상담과 귀농귀촌 정책 안내를 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열을 올렸다.

더불어 고창군은 지난 7일부터 9일

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성공 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 고창군은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전국 단위 박람회 및 상담홍보전 4회, 도시민 상담 교육 2회, 2차 3일 현장견학 프로그램 3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넓은 산과 바다, 들을 간직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은 귀농귀촌하기 정말 매력적인 도시이다"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